



뉴스라인은 일간지, 잡지, 컴퓨터 통신 정보란 등에 올라 있는 기사 중에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날짜와 게재지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의문 사항 있으신 분은 '광학세계' 편집부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광산업〉

광주과학기술원,
'광기술 컨소시엄' 출범

광주 광산업 육성을 위한 광기술 컨소시엄이 광주과기원 주관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광전자 반도체 등 35개 기업대표와 광주과기원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기술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광기술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이관행 광주과기원 기획연구처장 등 광주과기원 교수 6명과 우일ENG 천갑수 사장 등 6명의 기업대표로 구성돼 향후 1년간 광정보통신분야, 광원소재분야, 광정밀기기분야, 계측 및 처리기기분야 등 광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의 협의 및 조정에 나서게

된다.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본격화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002년까지 지자체 총 예산의 1%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입하고, 2004년까지 16개 전 지자체에 과단위 과학기술업무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지역별로 전략·특화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을 마련, 2000년에 2,98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04년까지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에 모두 1조3,73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전통·특화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04년까지 모두 3,402억원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센터(서울), 광기술연구소(광주), 오토밸리 조성(울산), 스피커음향기기기술혁신센터(충북) 등 지역기술혁신거점 육성을 위해 총 6,1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계·금속연구센터(대구), 산업용 멀티미디어

센터(경남), 기초과학연구성과물 실용화(대전) 등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1,230억원을 지원하고 신발·컴퓨터 특성화고교 설립(부산), 정보통신대학원 신설(인천), 광산업 관련학과 신설지원(광주) 등 지역별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962억원의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카메라〉

삼성전자,
전자랜드에 '디지털 체험관' 오픈

삼성전자는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디지털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용인 에버랜드 내에 '디지털 어드벤처'를 연 데 이어 서울 용산 전자랜드 내에 '디지털 체험관'을 개관했다.

전자랜드 신관 4층에 94평 규모로 만들어진 '디지털 체험관'은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전시, 소비자들이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디지털 제품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꾸며졌다.

용인의 '디지털 어드벤처'에는 곧 상품화될 차세대 제품 위주로 전시돼 있다.

용산의 '디지털 체험관'은

국내 및 국외 신제품

삼성전자, 누드 디자인 보급형 디지털카메라 시판

삼성전자가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시장에 참여한다. 밀레니엄 디자인 콘셉트를 채택해 제품 내부구조가 흰히 들여다 보일 뿐 아니라 가격이 30만원대인 '누드형 디지털카메라(모델명 SDC-80)'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녹·청·오렌지·흰색 등 4계절을 테마로 한 감각적 컬러로 디자인됐다. 85만 화소이며 1.8인치 TFT LCD를 채택,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는 물론 NTSC-PAL방식의 모든 TV를 통해 출력, 확인이 가능하다. 20장까지 촬영·저장할 수 있는 4MB 스마트미디어 카드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MP3플레이어·컴퓨터 등과도 호환이 가능하고 최고 32M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1999년 10만대 미만에서 2000년에는 20만대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10만대를 점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소니, '사이버샷' DSC-F505K'

소니가 작년 말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사이버샷(DSC-F505K)'은 SLR타입으로 3대 렌즈인 독일 칼 차이즈의 광학5배 줌 렌즈를 장착한 점이 돋보인다.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의 렌즈는 지금까지는 3배줌이 고작이었다.

211만의 고체촬상소자(CCD)를 탑재시켜 35mm필름 카메라로 찍

은 은염사진 수준의 고화질을 실현하고 있다. 사용성을 크게 향상시켜 촬영자는 몸체 뒷면의 액정패널을 보면서 손떨림을 걱정할 필요없이 앵글을 돌릴 수가 있다. 정지화면뿐 아니라 음성이 들어가는 움직이는 영상도 연속 1분까지 촬영 가능하다.

한 화면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잘라내 보존하는 트리밍 기능 외에 셔터 스피드, 조리개를 조정하거나 야경을 멋지게 찍는 기능 등을 장착했다.

몸체에 마그네슘합금을 채택해 무게를 439g으로 가볍게 했다. 크기는 107.2×62.2×139.9mm. 이밖에 영상데이터를 PC에 고속으로 전송하는 단자를 장착시켰고, 기록매체로 '메모리스틱'을 이용하고 있다. 가격은 12만5000엔이다.

올림퍼스, 광시야각 액정모니터 탑재 디지털카메라 출시

일본 올림퍼스광학공업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화면을 볼 수 있는 광시야각 액정모니터를 세계 최초로 탑재한 디지털카메라를 출시했다.

211만 화소의 'CAMEDIA C-2020ZOOM', 131만 화소의 'CAMEDIA C-920ZOOM' 2종. 'C-2020ZOOM'은 3배줌렌즈를 탑재하고 최대 6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할 수 있으며, 피부색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화이트밸런스 계통의 정밀도를 높였다. 11만 3000엔의 가격이며, 월 3만대씩 생산할 계획이다. 'C-920ZOOM'은 3배줌렌즈를 장착해 초당 2컷의 연사와 1초 이하 간격으로 속사가 가능하다. 월 4만대씩 생산할 예정이다.

주제별로 디지털 TV와 DVD 플레이어 등으로 구성된 '홈멀티미디어관'과 각종 디지털 카메라 및 디지털 비디오카메라가 전시된 '디지털카메라관', 각종 휴대형 컴퓨터와 MP3 플레이어가 전시된 '오

피스멀티미디어관', 고객의 휴식공간인 '인터넷 카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올림퍼스 나가시마 해외마케팅 총책임자 인터뷰

일본 올림퍼스 해외마케팅 총책임자인 나가시마 마사노리 그룹리더는 최근 '올림퍼스 디지털카메라는 북미와 일본시장이 95%를 점유하고 나머지 5%를 기타국가에서 판매한다. 시장 다변화가 급한데 이를 한

국시장을 중심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디지털카메라 업체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가속되고 있어 한국시장에서도 코닥·후지·리코 등과 치열한 점유율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올림퍼스는 일본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고성능 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한국시장에도 저가형 제품보다는 고가형 제품을 중심으로 판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시장에서 2002년까지 3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며, 자체 시장조사 결과 현재 한국시장 점유율을 약 15%로 보고 있다.

〈복사기〉

복사기업계, 수출 실력 '명암'

1999년도 복사기 수출이 업체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복사기 '빅3' 가운데 복사기 수출을 주도해왔던 신도리코는 1999년에 내수위주의 영업전략을 펼치면서 수출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수출물량이 저조했던 롯데캐논은, 한국후지제록스는 수출 전용 모델을 출시하고 일본 제휴사와 공동생산, 수출 등으로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

하면서 꾸준히 시장을 넓혀 복사기 수출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신도리코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디지털복사기를 중심으로 1998년 총 1200억원 규모의 제품을 수출했으나 1999년은 내수 공략에 치중한 결과 10월말 현재 수출액이 730억원에 그치고 있다. 12월분 물량을 합친다하더라도 전체 수출량은 전년 대비 33% 정도 줄어든 800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캐논은 10월말까지 36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출액인 2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10억원 규모의 실적을 올려 1999년 올해 모두 700억원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캐논은 '수출 전용 디지털복사기(모델명 GP-210) 출시와 일본 제휴사인 캐논과 복사기 완제품 생산, 해외시장 개척을 공동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도 그 동안의 일본시장 위주의 수출전략을 탈피해 올해 인도, 중국 등 신흥시장 개척에 나선 데다 일본 제휴사인 후지제록스와 제품 공동 생산, 수출을 추진, 11월말 현재 330억원 어치의 복사기를 수출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한국후지제록스는 1999년 총수출액이 1998년 290억원보다 25% 정도 늘어난 380억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사기시장 '몸집' 커졌다

국내 복사기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1999년 국내 복사기 시장은 연초부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벤처기업, 소호(SOHO) 창업자, 출판사업자를 중심으로 기업체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10월말 현재 6만대 수준에 달해 지난해의 5만 9000대를 이미 넘어섰다.

이어 겨울철 성수기가 본격화되고 복사기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1999년 총 복사기 시장규모는 1998년 5만 9000대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8만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리코는 최근 벤처기업과 신규 창업사를 중심으로 분당 25장의 중급기를 집중 공급, 1999년 월 평균 복사기 공급대수를 1999년에 비해 500대 정도 늘어난 2500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롯데캐논은 1999년 들어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데다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 데

힘입어 월 평균 복사기 공급 대수가 1998년에 비해 400대 정도 늘어난 1600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대형 인쇄형 프린팅 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 전체 복사기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했으나 월 평균 공급물량을 지난해 대비 20% 정도 증가한 1500대 수준까지 높였다.

**정부기관 조달용 공급업체 입찰
복사기 4개 업체 모두 선정**

정부기관 조달용 복사기 공급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조달청 산하 중앙보급창은 작년 11월 대우통신,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 롯데캐논 등 복사기 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입찰을 실시해 이들 4개 업체 모두를 내년 11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주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복사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공급하는 복사기는 22장에서부터 39장에 이르는 중급 아날로그 복사기로 대우통신 2기종을 비롯해 롯데캐논, 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가 각각 1기종, 총 5기종으로 총 공급물량은 9000대분이다.

복사기 업체들은 이에 따라 조달계약을 마무리짓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조달용 복사

기 공급 영업을 전개하게 된다.

대우통신은 이번 조달입찰 결과 자사 22장기인 DCP-4080S 500대와 30장기인 DA601 1000대로 총 1500대를 공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이 제품을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도리코는 이번 공급기종으로 자사 39장기인 XT-5540 2500대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영업부와 별도로 조달용 업무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이전에 할당 물량을 조기에 공급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분당 36장기 아날로그 복사기인 X360 2500대 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직판사업부와 영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조달용 복사기영업팀을 별도로 가동하는 등 기존 영업과 함께 조달용 복사기 판매에도 치중하기로 했다.

롯데캐논은 이번 조달청과의 입찰결과에 따라 2000년 11월 말까지 자사 37장기 LC-9037을 2500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특히 그 동안 중급기를 주력으로 삼고 있었던 데다 최근 전국 AS센터 망 구축을 완료한 데 힘입어 향후 서울,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 중소 도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이 제품을

쉽게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日 캐논, 디지털복사기 시장 진출

일본 캐논이 분당 100장 이상을 복사하는 초고속 디지털 복사기 사업을 벌인다고 '일간공업신문'이 보도했다. 캐논은 당분간 독일의 대형 인쇄기기 업체인 하이델베르크에 공급할 OEM 제품을 생산하며 기술을 축적한 후 내년 자사 브랜드로 우선 미국과 유럽 시장에, 이어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캐논은 하이델베르크로부터 분당 복사속도 110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종에 들어갈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예정이다.

캐논의 디지털복사기 기술은 분당 60장을 소화해 내는 수준인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제록스의 '다큐텍' 시리즈는 분당 180장까지 복사할 수 있다.

**인하대 이종무 교수팀, 사무기기
DLC 코팅기술 개발**

인하대 재료공학부 이종무 교수팀은 지난 1년동안 2억원을 들여 레이저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등 사무용 기기의 핵심부품인 OPC드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DLC(Diamond Like Carbon) 코팅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자장 제어 플라즈마기술을 이용해 OPC드럼에 다이아몬드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드럼의 경도를 28배 이상 향상시켜 OPC드럼의 수명을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또 DLC 코팅기술을 이용한 OPC드럼은 90% 이상의 높은 광투과도와 10V 수준의 우수한 잔류전위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고속복사기에서 나타나는 잔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에 5만~10만장에 머물렀던 복사 한계를 20만장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이종무 교수는 "OPC드럼에 다이아몬드막을 코팅하는 기술은 몇년 전 국내 가진 3사가 개발한 'VCR 헤드드럼의 DLC 코팅기술'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것으로 일본 마쓰시타 전기 등 일부 업체가 개발에 성공했으나 광투과도가 80% 수준에 머무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상업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술 개발 협력업체인 우경전광과 백산한정밀을 통해 DLC 코팅 기술을 응용한 OPC드럼을 본격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레이저〉

양자 레이저 기술 '각광'

실리콘과 함께 반도체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갈륨비소 박막에 인듐비소를 포개놓을 때 발생하는 양자를 이용한 레이저 기술의 개발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의 조기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미국 플라이마우스 주립대에서 열린 양자 레이저 관련 분야 연구성과를 한 데 모아 발표하는 학술 세미나 '고분회의'에서는 일본 NEC 광전자 연구소의 니시 켄이치 박사가 발표한 '박막 결정 성장 메커니즘 (Thin Film and Crystal Growth Mechanism)'이라는 논문이 단연 주목받았다. 이 논문의 핵심내용은 수백 옹스트롬(\AA : 1\AA 은 1000만 분의 1mm 로 대체로 수소원자 1개의 크기)에 불과한 양자를 레이저 다이오드에 삽입하는 데 성공했으며, 또 앞으로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면 5년 안에 100°C 의 고온에서도 작동하는 양자레이저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자 레이저는 고온에서 작

동하는 것 외에도 기존 제품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은 데다가 파장도 짧은 등 레이저 광선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니시 박사는 또 '양자 관련 기술은 앞으로 레이저 외에도 광증폭기·검파기·스위치 등의 성능향상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쓰시타, 2파장 레이저 신제품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자공업은 파장이 다른 두 종류의 레이저광을 쏘아 CD와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양쪽 데이터를 모두 해독하는 2파장 레이저 신제품을 개발했다.

마쓰시타는 이 제품을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CD-DVD 일체형 구동장치용으로 2월부터 개당 5000엔의 가격으로 샘플 출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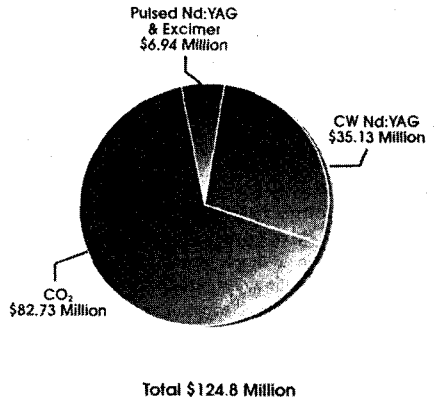
마쓰시타가 이번에 개발한 2파장 레이저는 하나의 기관상에 두 종류의 레이저가 수평으로 나열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레이저광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층(層)에 알루미늄·인듐·인 등을 채택해 레이저광이 펄스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쓰시타의 신형 레이저는 펄스상에 반사한 빛이 레이저 부품으로 되돌아와 상호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잡음을

산업레이저 선적량 감소

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용 레이저 선적량이, 커팅응용을 위한 CO₂레이저 시스템의 수증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9년 1/4분기에 10% 감소했다. 지난 해 동합회는 1/4분기 선적량을 152.6백만\$로 발표했다. 그러나 1998년 여론조사에 관련된 몇몇 주요회사의 선적 실적은 1999년에는 위와 같이 감소했다. 두 해 동안 선적실적을 발표했던 회사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 초 통계로는 10% 감소세를 나타냈다. (PHOTONICS, 1999년 9월)

1999년 1/4분기
산업용 레이저 선적량



낮출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잡음을 낮추기 위해 외부에 별도의 부품을 장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 체적을 약 20% 줄일 수 있고 비용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현재 소니, 도시바, 샤프 등에서도 2파장 레이저를 연구개발중인데 이들의 제품은 디스크로 반사한 빛이 레이저 부품에 되돌아와 간섭하면서 잡음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잡음이 많아지면 데이터를 해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외부 회로나 파장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2파장 레이저는 파장 780nm의 적외레이저로 CD 데이터를, 650nm의 적색레이저로 DVD 데이터를 각각 해독한다.

<기 타>

웹카메라 개발 활기판다

가정·사무실·중앙관제소 등에서 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전송하고 웹브라우저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웹카메라 개발이 활발하다.

기존 CCTV카메라의 거리 제한·장소제한·사용자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웹카메라 기술이 최근 급부상함에 따라 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삼성항공 등 대기업도 개발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영상압축처리 전문 벤처기업 옵티테크는 웨이블릿

(Wavelet) 영상압축기술을 사용, CCTV카메라 크기의 케이스에 CCD모듈·영상압축기·웹서버 컴퓨터를 내장해 별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없이도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격지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 '웹아이'를 양산, 엔터테인먼트시장에 선보인다.

1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웹아이'는 고해상도(720X486)의 화질을 초당 30프레임까지 압축전송이 가능하다. 다양한 해상도 선택기능·점진적으로 해상도가 향상되는 프로그레시브 모드를 개발, 저속의 네트워크망 사용자를 위한 기능도 갖추는 한편 리눅스 운영 체계를 채택했다.

삼성전자도 별도의 운영프로

그램없이 세계 각처의 모습을 JPEG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웹카메라를 내년초 출시한다는 계획으로 개발중에 있으며 보안시장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웹카메라를 E메일을 이용한 화상 전송도 가능하며, RS-232C 인터페이스를 채용해 원격제어가 가능하고 다양한 크기의 화면구성과 싱글 및 쿼드화면도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삼성항공도 웹카메라 개발을 이미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내에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렉트릭시스템·영화오토텍·세연테크·모두시스템 등 중소기업들도 웹카메라의 개발을 완료, 현재 웹카메라 시장 활성화에 대비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유틸테크 등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보안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중심으로 웹카메라 판매에 본격 나서게 되면 이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웹카메라는 저렴한 비용에 실시간으로 장소와 거리에 관계없이 놀이방에 있는 자녀를 관찰할 수 있고 유명 관광지 사전에 볼 수 있는 등 응용분야가 다양해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PC카메라 'CMOS방식' 뜬다

상보성 금속산화막반도체(CMOS) 칩을 채택한 PC카메라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ADSL이나 케이블 모뎀 같은 고속 통신 인프라 보급과 동영상 채팅 등 다양한 동영상 이용 솔루션이 일반화 하면서 CMOS 방식의 PC카메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들어 8월까지만 해도 한달에 7000대 정도에 그쳤던 PC카메라시장이 11월에는 1만5000대 정도 판매되는 등 급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업체들의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통신은 누드 디자인을 채택한 '넷츠'를 내놓았으며 '코알라캠'으로 PC카메라의 팬시 바람을 몰고온 알파비전텍은 동영상 처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알파캠'을 선보였다.

그동안 PC카메라를 생산 판매해온 프로칩스도 기존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루키' 시리즈 후속 모델을 출시하기로 하고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모니터 모양의 'LPC UM-40'을 라스베이거스 컴덱스에 출품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CMOS방식의 PC카메라는

별도의 드라이버 칩이나 타이밍 제너레이터 칩이 필요한 CCD 방식에 비해 생산원가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전력도 12V가 필요한 CCD방식에 비해 3V로 매우 낮은 게 장점이다. 현재 CMOS PC카메라 가격은 10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PC카메라 공급업체들은 특히 CMOS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동안 CCD 방식의 제품에 비해 상대적 단점으로 지적돼오던 이미지 품질 문제를, 이미지를 인식하는 개별 픽셀에 증폭장치를 다는 APS(Advanced Photodiode Sensor)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상당히 개선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외국의 PC카메라 시장은 CMOS 방식이 주류이고 국내에서도 곧 CMOS 방식의 제품이 CCD 방식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CMOS 관련 신기술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PC카메라 사업 '눈독'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PC카메라 시장을 겨냥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대기업의 신규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과 기존 업체의 내수시장 쟁탈전이 뜨겁다.

자판기시장 다시 활기떨 듯

자동판매기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스티커자판기 특별소비세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특별1부는 최근 동래 세관이 한보전기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 대해 '스티커자판기를 고급 사진기로 보고 특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한보전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999년 6월 지방법원에서 한보전기가 승소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자판기업계와 정부간의 법정 공방을 사실상 매듭짓는 판결이다.

삼성항공, 반도체, 광디지탈 시스템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

삼성항공이 반도체와 광디지탈 시스템 부문을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삼성항공은 전체 사업 부문 가운데 61%를 차지했던 항공방산사업 비중을 36%로 낮추고 반도체 핵심부품·제조장비 및 광디지탈시스템 관련 사업의 비중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구조조정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를 통해 1998년 1조8000억원이던 매출을 오는 2003년

에는 반도체시스템 부문 9000억원, 광디지탈시스템 부문 5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밀기계 및 리드프레임사업을 통폐합, 반도체시스템사업 부문으로 특화시키고 카메라 및 광응용기기 등은 광디지탈시스템 사업으로 확대 재편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부품 및 장비 관련사업에 3000억원의 시설투자자와 차세대 반도체 재료 개발사업에 2000억원의 개발투자 등 총 7000억원을 5년에 걸쳐 집중 투입, 두 사업 부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 금속성분의 반도체 핵심부품을 비금속성 필름소재로 대체, 부피와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키로 하는 등 수익과 직결되는 소프트시스템 기술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 부문에서는 저부가가치 공정 축소로 부품을 단순생산하는 데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미한 모듈화를 추진, 제조경쟁력을 30% 이상 높일 계획이다.

삼성항공은 이에 앞서 지난 1997년 IMF 이후 불황의 여파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물류자동화사업과 공작기계사업의 분사와 매각을 마무리했으며 최근에는 항공기사업 빅딜에 참여하는 등 구조조정작업

을 추진해왔다. 광전자주가 시장을 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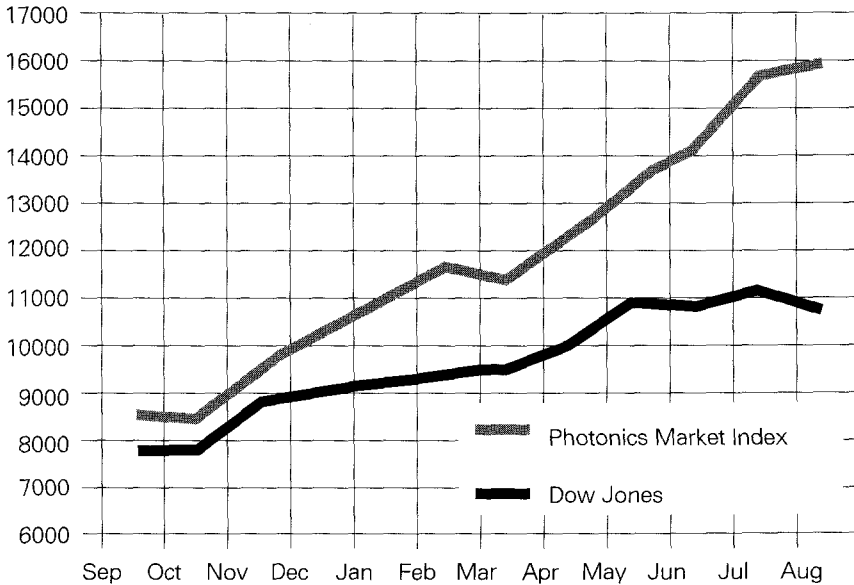
광전자 마켓지수가 1999년 7월 종합거래에서 1.39% 상승했다.

동 지수는 15,932.72에서 218.60포인트 상승 월마감됐다. 하향주는 35:23으로 상승주보다 많았지만, 22번 발행주는 연간 성장세를 기록했다. 회사에 따라 등락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연간 하락세를 기록한 회사는 없었다. 그러나, 중순까지 약속이나 한 듯이 올랐다가 같은달 말에 급격히 하락해서 장을 마감했던 대부분의 주요지수와 비교해서,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중순계 상승한 후에, 기술주에 대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10%(분석가들은 당연하지만, 불길한 이정표로 언급했는데) 이상 하락했다. 그 지수는 해당 1달동안 5.58% 하락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회사들은 반지수 성장은 3% 이상에 달했다.

많은 우량주들 (Lucent Technologies포함)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발표했을 때 비로소 시장이 급등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 판매를 수익차원에서 하는 투자의 사례로 해석했다.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 리포트를 접하기 전에 경제지표들



불구하고 왜 광전자주는 올랐는가. 그것은 이매징과 레이저 그룹의 강항 상승세(각각 10.18%와 4.74%로 마감됨) 때문이며, 광전자중 유일하게 하락한 두그룹은 전자공학(0.33% 하락)과 광학부품(8.06% 하락)이다. (PHOTONICS, 1999년 9월)

은 미래시장을 어둡게 내다봤다. 연방지불은행 총재인, Alan Greenspan은, 이자율정책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시장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고용비지수는 0.8%로 예측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2/4분기에 1.1% 상승했다.

더욱이, 시카고 구매관리지수에 따르면, 제조활동과 매니저들에 의해 지불된 가격은 6월에 60.0%에 60.5%로 상승했다. 또, 뉴스는 급격한 비울상승의 새로운 두려움으로 달라

올랐고, 인터넷주의 초기공개에도 결과를 초래한 Down-draft를 만들어 냈다.

문제가 된 시장 분위기에도

